

# 高麗大藏經과 日本



朴 熙 永

우리가 우리의 文化를 世界에 자랑하고 있는 것들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우리 圖書館人의 立場에서 볼 때에 무엇보다도 高麗大藏經의 雕板과 活字의 發明을 들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大藏經은 釋尊이 說한 經典을 漢文으로 翻譯하고 여기에 註釋을 加한 것과 이론 論한 것을 全部 合하여 大集成한 것을 大藏經 또는 一切經이라고 한다. 많은 佛敎의 經典들을 整理編纂하여 普及 또는 保存하기 爲하고 國民의 信仰을 集中하기 爲하여 大藏經의 印刷事業이 國家事業으로서 學族的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佛敎를 國敎로 하던 過去 東洋의 여러 國家들—지금도 그리하지만—우리나라를 비롯하여 中國, 蒙古, 西藏, 契丹, 日本 등에서 各其 大藏經 또는 一切經의 이름으로 大藏經이 印刷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高麗時代에 三回 雕板되었던 것이다. 第一回 第二回에 雕板된 板木은 남아 있지 않고, 第三回에 雕板된 板木만이 지금 海印寺에 保存되고 있는데 이것을 高麗大藏經이라 하고, 雕刻된 板木數가 八萬六千餘張이 됨으로 俗稱 八萬大藏經이라 한다.

高麗의 大藏經은 高麗成宗14年(995)에 第一次로 雕板되었다고 한다. 第二次로

雕板한 것은 高麗顯宗1年(1010) 契丹의 聖宗이 大軍을 거느리고 來侵하였을 때 이를 外敵을 退治하여 나라를 救할 目的으로 顯宗2年(1011)에 雕板을 着手하여 三十餘年의 긴 歲月을 거쳐 文宗(1047~1083)에 이르러 5,048卷을 完成하였다고 하는데 高麗宣宗4年(1087) 2, 3, 4월에 各各 王이 興王寺, 開國寺, 歸法寺等に 幸次하여 大藏經의 完成을 慶祝하였다고 記錄되어 있으며 이 板木은 八公山 符仁寺에 秘藏하였었다 한다.

高麗高宗19年(1232) 蒙古兵이 來侵하여 무엇보다도 이 經板을 먼저 焚燬해 버렸으므로 江華島에서 蒙塵生活을 하고 있었음에도 不顧하고 高宗23年(1236) 國民의 精神을 統一하고 必勝의 信念을 培養하기 爲하여 大藏經의 再雕를 始作하여 16年の 長時日을 消費하여 高宗38年(1251)에 이르러 現在 伽倻山 海印寺에 있는 우리가 世界에 자랑하는 印謂 八萬大藏經이 完成되었던 것이다.

高麗大藏經이 世界에 자랑하는 理由로는 여러가지를 들 수 있으나 그 중에서 특히 內容編纂에 있어서 當時 여러 나라에 있는 經典을 最大限으로 蒐集하여 參照하고 比較한 然後에 經名, 譯名, 卷數 등을 確定하였고 여러 學僧으로 하여금 各國의

經典과 字字句句를 精密하게 相互核合하여 聖典으로서의 絕對完全性을 期하였다는 點을 들 수 있다. 이것이 完成된 以後 各國에서 刊行된 經典의 原本이 되었던 것으로서 이와같은 高價의 高麗大藏經은 여러 나라로부터 請求에 왔으며 따라서 여러 나라로 高麗大藏經이 가게 되었다.

우리 나라로 부니 文化를 輸入하여 發展한 日本이 우리의 大藏經을 얼마나 求해 왔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百濟 古爾王5年(285) 博士 王仁이 仁齋論語 十卷과 千字文을 가지고 日本으로 가서 漢字와 漢文을 가르쳤으니 이것이 日本에 文字가 있게 되고 圖讖를 갖게 된 嚆矢라고 말하고 있으며, 또한 百濟 聖王 30年(552) 佛像과 經典을 日本으로 보냈는데 이것이 日本에 佛教가 傳해진 始初라고 하고 있다. 百濟로부터 繼續 十餘名의 高僧이 渡日하여 布教하였다고 한다. 未開 日本은 韓國으로부터 文物制度를 받아들이기 에 熱中하였으며 그중 하나의 例를 들면 우리의 關心事인 高麗時代 王宮圖書館인 御書院을 日本에서도 그대로 模倣하여 御書所라고 稱한 것을 보아도 얼마나 우리의 制度를 模倣하였던가를 알 수 있다. 우리나라로부터 文化를 輸入하고 있었던 日本은 우리가 大藏經을 雕板하자 이것을 所有하려고 極甚한 努力을 하였는데 高麗高宗38年(1251) 大藏經이 完成되서부터 日本이 韓國을 侵犯하여 이르킨 所謂 壬辰倭亂이 이터나 李朝 宣祖25年(1592) 까지의 340年間 日本이 韓國의 大藏經을 求하러온 事實을 高麗時代는 高麗史, 高麗史節要에 依하고 李朝時代는 朝鮮王朝實錄에서 이를 추려본다면 다음과 같다.

1389 廢王昌1年7月(高麗)

- 日本國使者 藏經을 求하다
- 1392 恭讓王4年6月(高麗)  
日本國交者 藏經을 求하다
- 1394 太祖3年12月 條  
日本國鎮西節度使 源了俊의 使者 大藏經을 求하다
- 1396 太祖5年3月 條  
日本國左京權大夫 多多良義弘의 使者 大藏經을 求하다
- 1398 太祖7年12月 條  
日本國六州牧 多多良義弘이 相國大夫人의 命으로 使者를 보내와 大藏經을 求하다
- 1399 定宗1年5月16日 條  
定宗1年6月 條  
日本國使者 大藏經板을 求하다  
定宗1年7月21日 條  
日本國使者를 引見하고 大藏經板은 二本이 있었는데 一本은 本國인이 印하고 一本은 海寇로 擄되어 缺하여 있으므로 完備해서 贈것을 答하다
- 1406 太宗6年2月27日 條  
日本國王 源道義의 使者 大藏經을 求하다
- 1407 太宗7年7月21日 條  
太宗7年9月1日 條  
日本大內 多多良德雄의 使者 大藏經을 求하다  
◎一部를 賜하다
- 1408 太宗8年5月22日 條  
日本大內殿의 使者 大藏經을 求하다  
太宗8年7月6日 條  
太宗8年8月1日 條  
◎日本大內殿에 一部로 賜하다
- 1411 太宗11年10月21日 條  
太宗11年12月1日 條

- 日本國王 使者 大藏經을 求하다  
日本大內殿 多多良德雄의 使者大藏經을 求하다
- ◎日本國王에 一部를 賜하다
- 1413 太宗13年3月2日 條
- ◎對馬島宗貞茂의 使者 大藏經을 賜함을 謝하다  
太宗13年6月11日 條
- ◎日本筑州 藤公에 一部를 賜하다
- 1414 太宗14年6月20日 條  
日本國王 使者 大藏經을 求하다  
太宗14年7月11日 條
- ◎日本國王에 一部를 賜하다
- 1415 太宗15年7月20日 條  
日本大內殿의 使者 大藏經을 求하다
- 1416 太宗16年8月20日 條  
對馬島宗貞茂의 使者 大藏經을 求하다  
日本大內 多多良道雄의 使者 大藏經을 求하다
- ◎賜하다
- 1417 太宗17年9月30日 條  
日本大內 多多良의 使者 大藏經을 求하다
- 1419 世宗1年8月21日 條  
日本大內 多多羅道雄에게 大藏經은 諸領의 求索으로 거이 없어졌음을 答하다
- 1420 世宗2年1月6日 條  
日本國使者 大藏經을 求하다
- ◎賜하다  
世宗2年12月8日 條  
日本國九州都元帥 右武衛源道鎮의 使者 大藏經을 求하다
- 1421 世宗3年11月16日 條  
日本九州摠管 源義俊의 使者 大藏經을 求하다
- 1422 世宗4年11月13日 條

- 日本九州都元帥源義俊 皇太后의 命으로 使者를 보내와 大藏經을 求하다  
世宗4年11月16日 條  
日本國王及其母后의 使者 大藏經을 求하다
- 1423 世宗5年11月17日 條  
日本國源義俊 大藏經을 求하다  
世宗5年12月25日  
日本國王道詮 大藏經을 賜함을 謝하다  
兼하여 大藏經板을 求하다  
大藏經板은 一本임으로 많우다
- 1424 世宗6年1月1日 條  
日本國王使俊 大藏經板을 求하나 一本임으로 金字華嚴經八十卷, 梵字密藏經板一部, 註華嚴經板을 賜하고자 하다  
世宗6年1月 2, 4, 5, 6日條  
日本國王 使者 絶食하며 經板을 求하다  
世宗6年1月8日 條
- ◎大藏經板代身으로 日本國王에 密敎大藏經板, 註華嚴經板, 大藏經一部를 賜하다  
世宗6年2月8日 條  
日本國王에게 大藏經板은 祖宗相傳의 것으로 一件임으로 못을것을 答하다.  
世宗6年12月17日 條  
日本 大藏經板을 얻어 가지 못함을 恨하여 回禮船을 拘留하고 72日後에 引見하였다고 回禮使가 復命하다.
- 1425 世宗7年4月12日 條  
日本國王 道詮의 使者 大藏經을 求하다

- 1432 世宗14年7月26日 條  
 ◎日本國王에 中國板印大藏經 二部를 賜하다
- 1434 世宗16年3月5日 條  
 對馬州太守宗貞盛 大藏經을 求하다
- 1440 世宗22年8月1日 條  
 世宗22年9月11日 條  
 日本國大內殿 多多良持世의 使者 大藏經의 求하다  
 ◎一部를 賜하다
- 1443 世宗25年11月18日 條  
 日本國 使者 大藏經을 求하다
- 1445 世宗27年2月 3, 9, 12日 條  
 ◎日本大內殿 多多良教弘의 使者 大藏經을 賜함을 謝하다  
 世宗27年3月12日 條  
 日本呼子殿 大藏經을 求하다  
 ◎賜하다  
 世宗27年5月14日 條  
 對馬島主宗貞盛의 使者 大藏經을 求하다  
 ◎一部를 賜하다
- 1446 世宗28年6月18日 條  
 日本國大內殿 多多良教弘의 使者 大藏經을 求하다  
 ◎一部를 賜하다
- 1448 世宗30年4月27日 條  
 日本國 使者大藏經을 求하다  
 世宗30年7月20日 條  
 世宗30年8月27日 條  
 ◎一部를 賜하다
- 1449 世宗31年3月19日 條  
 世宗31年9月4日 條  
 對馬島主 宗貞盛의 使者 大藏經을 求하다  
 ◎賜하다
- 1450 世宗32年1月6日 條  
 世宗32年閏1月15日 條  
 世宗32年2月16日 條  
 日本國王 源義成의 使者 大藏經을 求하다  
 文宗1年3月 19, 20日 條  
 1451 文宗1年4月2日 條  
 文宗1年5月12, 13日 條  
 ◎日本王國에 一部를 賜하다
- 1452 文宗2年10月15日 條  
 日本國 使者 大藏經脫帙一百三十卷을 求하므로 이를 完補하여 賜하다  
 文宗2年12月13日 條  
 ◎日本國博多宗金에게 善山府得益寺 所藏의 大藏經 三千八百卷을 賜하다
- 1455 世祖1年8月25日 條  
 世祖2年1月7日 條  
 琉球國使者 大藏經을 求하다  
 ◎賜하다
- 1456 世祖2年3月15, 21日 條  
 日本國王 源義政의 使者 大藏經 七千餘卷을 求하다  
 ◎賜하다
- 1457 世祖3年5月26日 條  
 世祖3年7月9日 條  
 ◎日本國使者에 一部 賜하다  
 世祖3年6月26日 條  
 藏經을 日本에 賜하여 殘存함이 얼마 되지 않으므로 來年2月부터 五十件을 印하도록 하다
- 1458 世祖4年2月26日 條  
 世祖4年3月9, 11, 16, 21, 28日 條  
 世祖4年5月3, 13日 條  
 ◎琉球國王 使者 去年 大藏經을 賜함을 謝하다
- 1459 世祖5年6月7, 8日 條  
 世祖5年7月8, 22日 條  
 日本國王 使者 大藏經을 求하다

- 世祖5年8月23日 條
- 日本國王에게 賜하다
- 1460 世祖6年5月14, 15日 條  
日本國畠山殿 源義就의 使者 大藏經을 求하다  
世祖6年9月4, 27日 條  
日本國左武衛 源義成의 使者 大藏經을 求하다
- 賜하다
- 1461 世祖7年12月2, 12, 23日 條  
琉球國 使者 大藏經을 求하다
- 1462 世祖8年1月10, 15, 16日 條
- 琉球國에 一部를 賜하다  
世祖8年10月9, 23日 條  
日本國 源義政의 使者 大藏經을 求하다  
世祖8年12月14日 條
- 日本國 源義政에 一部를 賜하다
- 1471 成宗2年11月2, 9, 10, 23日 條  
成宗2年12月13日 條
- 琉球國王 尙德에 一部를 賜하다
- 1473 成宗4年9月10日 條  
日本國 防長攝泉四州太守大內 別駕 多多良政弘의 使者 大藏經을 求하다  
거의 없어져서 못주다
- 1479 成宗10年4月17, 19日 條  
日本國大內 左京兆尹中大夫 政弘의 使者 大藏經을 求하다  
成宗10年5月7, 22日 條
- 一部를 賜하다  
成宗10年5月16日 條  
成宗10年6月10, 22, 25日 條  
琉球國王 尙德의 使者 大藏經을 求하다
- 거의 없어져서 못주다
- 1482 成宗13年4月9日 條  
日本國王 源義政의 使者 大藏經을 求하다
- 成宗13年5月12日 條
- 日本國王 源義政에게 賜하다
- 1483 成宗14年9月13, 24日 條  
日本國大內 左京兆尹中大夫兼 防長 豊筑州太守 多多良政弘 大藏經을 賜함을 謝하다
- 1485 成宗16年8月30日 條  
日本國大內 左京兆尹中大夫兼 防長 豊筑四州太守 多多良政弘의 使者 大藏經을 求하다
- 1486 成宗17年5月8日 條  
對馬州太守 宗貞國에게 大藏經이 거의 없어졌음을 알리다
- 1487 成宗18年4月26日 條  
日本國王 源義政의 使者 越後州 安國寺를 爲하여 大藏經을 求하다  
成宗18年6月16日 條  
日本國左京兆尹中大夫兼防長豊筑四州太守大內 多多良政弘의 使者 大藏經을 求하다  
成宗18年7月9日 條
- 日本國王에 一部를 賜하다  
成宗18年8月3日 條
- 日本國大內 政弘에 一部를 賜하다
- 1489 成宗20年7月29日 條  
成宗20年8月10, 15, 29日 條  
成宗20年9月12日 條  
日本國王 源義政의 使者 大藏經을 國寶로 하기 爲하여 求하다  
成宗20年9月27日 條
- 日本國王에 一部를 賜하다
- 1490 成宗21年9月18日 條  
日本國大中大夫左京兆尹兼防長豊筑四州太守大內多多良政弘의 使者 大藏經을 求하다  
成宗21年9月24日 條
- 日本大內殿及小二殿에 賜하다  
成宗21年10月14日 條

成宗13年4月18, 25日 條

◎日本國大內 政弘에 賜하다

1491 成宗22年8月4日 條

日本國王 使者 大藏經을 求하다

1492 成宗23年3月3日 條

◎琉球國王에 一部를 賜하다

1493 成宗24年閏5月28日 條

成宗24年6月6, 9, 12, 14, 27日 條

成宗24年7月15日 條

◎琉球國王 使者 大藏經을 賜함을 謝하다

成宗24年8月11日 條

成宗24年9月24日 條

成宗24年10月3, 15, 20, 21日 條

◎日本國大內大中大夫左京兆尹兼良叟筑四州太守 多多良政弘의 使者 大藏經을 賜함을 謝하다

1500 燕山君6年11月17日 條

琉球國 使者 大藏經을 求하다

1502 燕山君8年1月19日 條

日本國 使者 大藏經을 求하다

◎星州安峯寺所藏의 것을 賜하다

燕山君8年4月12, 20日 條

日本國王 源義高의 使者 大藏經을 求하다

◎못주다

1517 中宗12年8月7, 9, 14, 17, 18日 條

◎日本國王 使者에게 賜하다

1537 中宗32年1月13, 14日 條

日本國王 使者 大藏經을 求하다

以上이 宣祖25年까지 사이에 日本이 高麗大藏經을 求하러 오고 또 이를 賜한 事實을 一方의이기는 하지만 王朝實錄에서 추리고있다. 한편 大藏經에 못지 않게 大般若經도 求하러 왔으며 이를 賜하였던 것이다.

日本으로부터 大內殿 多多良가 使者를 여러번 보내 왔는데 多多良에 對하여 端宗元年(1453)6月24日 「日本國大內殿 使者가 와서 多多良氏의 祖上 百濟의 琳聖太子의 譜系를 請하므로 春秋館 集賢殿으로 하여금 古籍을 考하여 이를 알여 주도록 하였다」라는 記錄이 있는데 이보다 앞서 定宗元年(1399) 8月에는

「百濟始祖溫祚王高氏之後其先靈雖徙於日本 世世相承至于六州牧……」라고 있다. 多多良의 請求로 여러부의 大藏經이 日本으로 갔는데 多多良는 百濟의 王家高氏임을 엿볼 수 있다.

近來에 와서 여러古典이 影印되고 있으며 특히 高麗大藏經을 東國大學校에서 影印하고 있음은 極히 慶賀할 일이라 아니 할 수 없다.

(筆者 韓國外國語大學 司書長)

## 會費 納付에 對하여

今年度 會費를 速히 納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本協會에서는 雜誌 刊行을 비롯하여 몇 가지 新規事業을 推進中이온바 요즘 財政적으로 艱難의 境에 처해있사오니 會費 捻出에 隘路가 많으실줄 아오나 可及的 速히 보내주시기를 바라나이다

4293年 3月 31日

事務局白